

지혜의 말씀

불기 2564년 2월 / 통권 468호



대한불교조계종 **진해대광사**



證道歌 (증도가)

일 지구 족 일 체 지
一地具足一切地요

비 색 비 심 비 행 업
非色非心非行業이라

하나의 지위가 모든 지위를 다 갖추고 있다
육신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고 행업도 아니다.

탄 지원 성 팔 만 문
彈指圓成八萬門이요
찰 나 멸 각 삼 지 겁
刹那滅却三祇劫이로다.

손가락 한번 튕기는 사이에 팔만사천 법문을 모두 이루고
한순간에 삼아승지겁의 업을 없애 버린다.

목 차

시와 불교의 만남 · 2

생각의 터 · 4

경자년의 비람 / 서경스님

불교상식 · 7

부처님의 생애

부처님의 말씀 · 10

알림마당 · 13

대광사 2월의 행사

고맙습니다

대광유치원 2월 행사계획

어린이법회 2월 활동

제19기 대광불교대학 신입생모집



표지그림/원성스님

● 발행처 / 대광사

경남 창원시 진해구 진해대로 303(태백동)

Tel. 055) 545-95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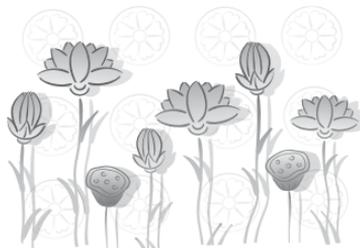
홈페이지 / ① 대광사

② www.daegwangsa.or.kr

● 발행인 · 편집장 / 서경스님

● 주 간 / 이숙경

● 편집 · 인쇄 / 디자인스프링





경자년의 바람

서경스님 / 대광사 주지

새해가 밝아 온지도 어느덧 한 달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나갔다. 새로운 해를 맞이하며 대광사에서는 양력 1월 2일 음력으로는 12월 8일 성도재일부터 자비도량 참법 기도를 11일까지 10일간 봉행하였고, 27일부터 31일 까지 5일간 관음예참 10약 참회 기도를 5일간 올렸다. 바쁘게 지나간 시간 이지만 마음 한구석 뿌듯한 출발이다.

모든 기도나 수행이 마음을 맑히는 방편이지만, 어리석은 우리네 중생들을 삶을 행복으로 이끄는 가장 수승한 수행법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모든 기도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여타 기도 가운데는 성취되기를 원하는 바람이 덧씨워지는 것이 보통의 일이다. 관음 기도는 관세음 보살님께 중생들을 고해에서 벗어나게 해달라 기원하고, 지장기도는 지장보살님께 지옥중생을 구제해 달라 기도를 올린다. 그렇지만 참회 기도는 과거의 잘못에 대한 반성과 함께, 앞으로는 지난날의 과오를 다시는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다짐으로

이루어진다. 그야말로 바램이나 구함이 없는 순수한 참회의 기도이다. 참회기도를 하면서 내 업장이 소멸되기를 기대하며 기도하는 불자들은 없을 것이다. 적어도 나의 입장에서는 오직 참회만 있을 뿐 다른 바램은 없다.

자비도량참법 기도는 화엄 십지의 보살님들에게 자신의 잘못된 업을 간절한 참회를 통하여 그 참회 공덕을 증명하시고, 참회의 공덕이 모든 중생에게 회향함이 주요 내용을 이룬다.

대광사에서 오랜 세월 동안 봉행한 관음예참은 입재와 삼일간 몸으로, 입으로, 마음으로 지은 삼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10가지 잘못 살아온 업에 대하여 참회를 하고 참회의 공덕을 모든 중생들을 위한 회향으로 마무리를 짓는다. 우리 들이 삶을 영위하면서 일상생활에서 쉽게 저지르는 옳지 못한 행동에 대한 참회이다. 사실 불교의 신행은 10악의 행위를 10선의 행으로 전환시키는 삶이다.

살생은 방생으로, 투도는 보시행으로, 올바르지 못한 부부 생활은 서로 존중하고 아끼는 삶을 살아간다. 악구는 자비로운 말로, 거짓말은 진실한 말로, 양설은 있는 사실 그대로를 또는 칭찬하는 말로, 아첨하는 말은 절제된 적합한 비겁하지 않은 몇몇한 말의 생활을 하면 된다.

욕심은 베품의 삶으로, 성냄은 자비로운 마음으로, 어리석음은 지혜로운 삶으로 전환하여 우리의 생활 속에서 실천하면 그만이다.

사람들은 그럴 수 있다. 앞에 말한 10선의 삶을 누구나 다 너무나 잘 아는 사실이다. 다만 실제의 생활에서는 실천하기가 만만치 않다고, 나 역시 이 말에 절대적으로 공감을 한다. 불교의 수행은 연

습이다. 익숙하지 않은 것은 익숙하게 하고, 익숙하지 않은 것은 익숙하게끔 하는 것이다.

나의 것을 나눈다는 것, 사실 망설여 질 때도 있다. 그러나 계속해서 노력한다면 언젠가는 망설임 없이 실천에 옮기는 날이 반드시 온다. 이것이 세상의 이치이다.

대광사의 모든 불자들이 정초기도에 담은 참회의 공덕이 경자년을 넘어서 앞으로의 삶에 지속적으로 녹아지는 한 해의 열림이기를 기원한다.

사족으로 보살의 마지막 가는 길에 좋은 길잡이가 되어주신 은사스님, 대중스님, 여러 보살님들께 감사를 올립니다. 고운 손으로 차 공양 올려주신 시라회원, 아름다운 음성공양으로 인연의 소중한 함을 전해준 찬불단원, 지휘자, 반주자 보살님, 후원에서 뒷바라지 해주신 보살님들의 따듯한 마음처럼, 우리 대광사 불자님들 자신의 몸과 입 그리고 마음 고운 한해 되소서!



3. 연기의 진리

1) 연기

“비구들이여, 내가 아직 정각을 이루지 못했을 때 이렇게 생각했다. ‘이 세상은 모두 고통으로 가득 차 있다. 나고, 늙고, 병 들고, 죽고, 그리고 다시 태어나면서 그 고통에서 헤어날 길은 모르고 있다. 언제 이 고통에서 헤어나는 도리를 알수 있을 것인가?’ 라고. 비구들이여, 나는 그때 다시 ‘무슨 연유(緣由)가 있어서 늙음과 죽음이 있는 것일까?’ 하고 생각했다. 나는 바른 사유와 지혜로써 해답을 얻었다. ‘태어나기 때문에 늙고 죽음에 이른다.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늙음과 죽음이 있다. 라고.”

「잡아함경」 「대정장 2. 80상」

구도자 싯타다는 법을 깨달아 마침내 부처가 되었다. 6년동안 각고의 수행 끝에 새벽별을 보고 깨달은 진리,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연기법(緣起法)이다. 태어남이 있으므로 늙음과 죽음이 있다는 ‘생성과 소멸의 관계성’을 깨달은 것이다. 연기란 ‘말미암아 일어난다’는 말로 여러 가지 원인과 조건에 의지하여 사물이 생겨난다는 뜻이다. 따라서 그 원인과 조건이 없으면 그 사물도 소멸한다는 것이다. 이 연기의 이치를 부처님께서 이렇게 설명하셨다.



이것이 있기 때문에 저것이 있고 (此有故披有)

이것이 생김으로써 저것이 생긴다 (此生故披生)

이것이 없기 때문에 저것이 없고 (此無故披無)

이것이 사라짐으로써 저것이 사라진다. (此滅故披滅)

「잡아함경」 「제14권, 358경」

연기법은 인연법(因緣法) 또는 인과법(因果法)이라고도 한다. 인연법은 인연생기법(因緣生起法)의 줄임말이다. 모든 사물은 원인(因)과 주변의 여러조건(緣)에 따라 서로 의지하면서 생성되고 머물다가 그 인연이 다하면 사라진다는 것이 인연법의 가르침이다. 인과법이란 어떤 원인에 의해서 그에 따른 결과가 일어난다는 뜻이다.

연기법은 모든 것은 독자적으로 홀로 존재하지 않고 상호 관계속에서 존재한다는 진리를 설파한다. 즉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바로 이런 연기의 법칙 즉, 서로 원인과 결과가 되어, 서로 의존하며 생겨난다는 것이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김으로써 저것이 생긴다’는 말은 존재의 생성을 설명하고, ‘이것이 없기 때문에 저것이 없고, 이것이 사라짐으로써 저것이 사라진다’는 말은 존재의 소멸을 설명한다. 이처럼 연기법은 존재의 ‘생성과 소멸의 상호 관계성’의 진리를 밝혀준다.

이 연기법에 따르면, 모든 존재는 저홀로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고 하여 신의 뜻이나 숙명에 따르는 것도 아니다. 세상을 신이 창조했다고 하면 우리는 계속 그 신을 창조한 자를 묻게 된다. 창조설은 아무리 설명해도 그 시원을 알수 없는 미궁속으로 빠지고 만다. 그렇다고 세상은 우연히 만들어



졌다고 말할 수도 없다. 우연히 존재하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 것도 없기 때문이다.

모든 존재가 발생한 데에는 반드시 그럴만한 원인과 조건이 있게 마련이다. 브라질에서 나비의 날갯짓이 텍사스에서 토네이도성 돌풍을 일으킬수 있다는 ‘나비효과’에 대해서 들어보았을 것이다. 경전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한 알의 겨자씨에 수미산이 포함된다고 했다. 하나의 티끌에 시방세계가 들어간다고 했다. 그만큼 아무림 사소한 하나의 파도, 하나의 물결, 하나의 날갯짓일지라도 그것이 우주의 움직임과 관련된다는 연기의 도리를 설명하는 것이다. 이렇듯 어떤 사소한 원인이라도 여러 가지 조건과 결합되어 커다란 결과를 동반하기 마련이다.

배추의 경우르 보자. 배추는 배추씨가 원인이 되어 싹을 틔워 자라난 것이다. 상추씨가 배추로 자라날 리 없다. 그리고 배추씨가 땅에 뿌려졌다고 해도 다 배추로 자라나는 것은 아니다. 땅의 토양, 수분, 햇빛, 거름등의 조건에 따라 싱싱한 배추로 자라나기도 하고 자라다가 시들기도 하며 아예 발아하지도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똑같은 원인이 주어졌다 해도 조건에 따라 결과는 달리 나타난다. 하지만 원인없는 결과는 이세상에 아무것도 없다.



제2품 작은 법문의 품

14. 담미까의 경

14. 모든 형상과 소리와 냄새와 맛과 감촉은 못 삶을 도취시킨다. 이런 것에 대한 욕망을 삼가고, 정해진 시각에 아침식사를 얻으러 마을에 들어가라.
15. 그리고 수행승은 바른 때에 탁발한 음식을 얻어 홀로 돌아와 외딴 곳에 앉아라. 안으로 돌이켜 자신을 섭수하고 마음이 밖으로 흩어지게 해서는 안 된다.
16. 어떠한 다른 제자이든 어떠한 다른 수행승이든 함께 이야기할 기회가 있거든, 그에게 훌륭한 가르침을 말해 주어라. 중상하거나 비방해서는 안 된다.
17. 어떤 사람들은 비난받으면, 적대하는데, 우리는 그 지혜가 적은 사람들을 칭찬하지 않는다. 그들에게 집착들이 이곳저곳에서 들러붙는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의 마음을 그곳에 깊숙이 말려 들게 하기 때문이다.
18. 지혜가 뛰어난 님의 제자는 바른 길로 잘 가신 님의 설법을 듣고, 탁발한 음식과 잠자리와 깔개 그리고 가사의 때를 씻을 물을 조심해서 사용하라.



19. 그러므로 수행승은 탁발한 음식과 잠자리와 깔개 그리고 가사를 세탁할 물, 이러한 것들에 의해, 마치 연꽃잎에 구르는 물방울처럼, 더럽혀지는 일이 없다.
20. 이제 재가자가 지녀야 할 생활에 대하여 말하리라. 이와 같이 행하는 제자는 훌륭한다. 오로지 수행승에게 주어지는 가르침은, 소유에 얽매인 사람이 지킬 수 없다.
21. 산 것을 죽이거나 남을 시켜 죽여서는 안 된다. 그리고 죽이는 것에 동의해도 안 된다. 식물이건 동물이건 폭력을 두려워하는 모든 존재에 대해서 폭력을 거두어야 한다.
22. 그리고 제자는 주지 않는 것은 무엇이든, 또 어디에 있든, 그것을 갖지 말라. 빼앗거나 빼앗는 것에 동의하지도 말라. 주지 않는 것은 무엇이든 가져서는 안 된다.
23. 양식 있는 사람이라면 타오르는 불구덩이를 피하듯, 순결하지 못한 행위를 삼가라. 만일 순결을 닦을 수가 없더라도, 남의 아내를 범해서는 안 된다.
24. 모임에 있든 무리 가운데 있든 간에, 누구도 남에게 거짓말을 해서 안 된다. 거짓말을 시켜도 거짓말에 동의해도 안 된다. 모든 근거 없는 말을 하지 않는다.
25. 또 술을 마셔서는 안 된다. 이 가르침을 기뻐하는 재가자는 이것은 마침내 미치게 하는 것임을 알고, 마시게 해도 안 되고 마시는 것에 동의해서도 안 된다.



26. 그러나 어리석은 자들은 취함으로써 악을 짓고, 또한 남들로 하여금 방일하게 하고 나쁜 짓을 하게 한다. 이 불행의 원인을 피하라. 미치게 하며 어둡게 하는 것인데, 어리석은 자가 이를 즐기는 것이다.
27. 생명을 해치지 말라. 주지 않는 것을 갖지 말라. 거짓말을 하지 말라. 술을 마시지 말라. 순결하지 못한 성적 교섭을 떠나라. 밤에는 때 아닌 때의 음식을 먹지 말라.
28. 화환을 걸치지 말고 향수를 쓰지 말라. 적당한 깔개를 깔 바닥이나 침상에서 자라. 이것이야말로 여덟 고리로 된 포살이다. 괴로움을 끝낸 깨달은 님의 가르침이니라.
29. 그러므로 각각 보름기간의 제14일과 제15일과 제8일에 포살을 닦으라. 그 신성한 달에 올바르게 갖추어진 여덟 고리를 준수해서 청정한 마음으로 계율을 지켜라.
30. 그런 뒤에 포살을 행한 양식 있는 자는 청정한 마음으로 기뻐하면서, 이튿날 아침 일찍 수행승들의 무리에게 마실 것과 먹을 것을 베풀어 주어라.
31. 바르게 어머니와 아버지를 섬기라. 올바른 직업에 종사하라. 이와 같이 방일하지 않고 사는 재가자는 스스로 빛나는 신들의 세계에 이르리라.”



대광사 2월 법회 및 행사

- ◇ 2월 2일 입춘.삼재소멸기도입재 오전 10시 30분 설법전
- ◇ 2월 4일 입춘.삼재소멸기도 회향 오전 10시 30분 설법전
- ◇ 2월 8일 보름법회 오전 10시30분 설법전
- ◇ 2월 17일 관음재일 다라니기도 저녁예불~
- ◇ 2월 24일 음력2월 초하루기도 입재 오전10시 30분 설법전
- ◇ 2월 26일 초하루기도 회향

※ 문의 및 접수 : 대광사 종무소 ☎055-545-9595





고맙습니다

대광후원회

(12.20 ~ 1.17)

정정자 30,000	구영근 20,000	김지현 100,000	오미라 30,000
홍승운 20,000	(주) 카텍 300,000	강 란 10,000	찬불단 50,000
김병문 20,000	정연수 60,000	이미정 50,000	이동이연숙 100,000
정대식 20,000	유봉악 10,000	공민진 30,000	조한분 25,000
손보미 10,000	이헌실 20,000	공영진 30,000	서경스님 150,000
김경남 20,000	원광회의원 100,000	유미란 50,000	대광후원회 100,000
공상섭 30,000	박미애 10,000	김병문 20,000	
이봉숙 10,000	최전화 50,000	노영수 20,000	

◆ 급식소 후원 계좌: 수협 921-61-001338 대광사 ◆

※ 후원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서부노인종합복지관 후원

조한분 25,000 서경스님 50,000

♥ 2019년 어르신한마당(누락분)

김순숙 100,000



2월 대광유치원 행사계획

1. 제36회 2019학년도 수료식

○ 일시 : 2020년 2월 21일(금)

2. 제36회 2019학년도 졸업식

○ 일시 : 2020년 2월 22일(토) 오전10시

3. 제37회 입학식

○ 일시 : 2020년 2월 29일(토) 오전 10시 30분

2월 어린이법회 활동

1. 어린이 졸업법회

○ 일시 : 2020년 2월 1일(토)



佛紀 2564年 대광사 신도기본교육 및 제19기 대광불교대학 신입생모집 안내

진흙에서 핀 은은한 연꽃이 세인을 매료시키듯 부처님의 말씀 또한 그러합니다. 부처님께서 어떤 것이 지혜로운 삶이며 어떻게 살아야 바른 삶인가를 가르치시고 이끄셨습니다.

대광사에서는 올해도 훌륭한 스님과 법사님들을 모시고 아래와 같이 부처님 가르침을 재미있게 배울 수 있는 신도기본교육 및 불교대학을 개강하오니 불자님들께서는 많이 동참하시어 값진 깨달음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신도기본교육 제19기 불교대학 신입생 모집 요강

	신도기본교육	대광불교대학
대 상	미수계자 및 초심자 누구나	신도오계 수계자
교육기간	2020년 3월 3일~3월 25일	2020. 3. 31(화)~12. 9(화)
수계일	2020년 3월 28일	(1년 과정 - 2학기제)

- ▶ 교육일시 : 매주 화·수 오전 10시~12시
- ▶ 접수기간 : 2019년 8월 1일부터 ~ 2020년 2월 말까지
- ▶ 수 강 료 : 신도기본교육 50,000원 (신도증발급, 수계비, 수련회비 포함)
불교대학 1학기 150,000원 (교재비, 성지순례비, 수련회비 포함)
- ▶ 문의 및 접수 : 대광사 종무소 055)545-9595
- ▶ 강의내용

의 식	예불 및 의식(찬불가)
예 절	사찰예절, 신도오계
교 리	부처님의 생애, 사성제, 팔경도 등
불 교 문 화	법당, 탑, 탱화, 벽화, 문학, 성지순례
신 행	참회와 기도, 사경 보시와 자비실천, 수련회
불 교 역 사	인도·중국·한국 불교사, 동남아 불교사
불 교 사 상	중관, 유식, 화엄, 선사상 등
경 전	반야심경, 천수경, 금강경 등
특 강	사찰음식, 다도, 불교 사회복지 실천, 수련회, 성지순례

대한불교조계종 진해대광사